

자연환경-타요바리스타즈, 카멋진남-W웨딩컨벤션 결승 격돌

<무등리그>

<광일리그>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정상에 도전할 최후의 팀들이 결정됐다.

지난 22일 무등중 야구장에서 무등기 준결승 경기가 펼쳐졌다. 무등리그에서는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과 타요바리스타즈가 결승권 티켓을 얻었다. 광일리그에서는 카멋진남V-KOOL과 W웨딩컨벤션이 우승권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무등리그 준결승 첫 경기에서 자연환경이 먼저 승리를 신고했다. 홈런 두 방이 승부를 바꿨다. 2-3으로 뒤진 3회, 자연환경이 최용희의 솔로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정상현의 투런포를 앞세워 5-3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자연환경은 이후 2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가장 먼저 결승에 올랐다. 무등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페가수스는 어렵게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재규어스야구단과 타요바리스타즈는 박이닝을 주고받으며 화끈한 승부를 펼쳤다. 0-0으로 맞선 2회 재규어스가 서준호의 만루포를 더해 6점을 뽑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하지만 3-8로 뒤진 4회 이닝에는 타요바리스타즈의 방망이가 폭발했다. 8점을 만든 타요바리스타즈는 대역전극을 연출했고, 재규어스는 5회 2점을 더했지만 시간제한에 막혀 10-11의 패배를

3연패 도전 페가수스 탈락

30일 무등경기장서 결승전

기록했다.

광일리그 준결승 첫 경기에서는 카멋진남V-KOOL이 막강 화력을 발휘하면서 15-1, 4회 콜드게임승을 장식했다. 1회 선취점을 만든 카멋진남V-KOOL이 2회 2점을 보냈다. 3-0으로 앞선 4회 카멋진남V-KOOL의 맹공이 펼쳐졌다. 김희동의 스리런 등으로 대거 12점을 뽑아낸 카멋진남V-KOOL은 콜드게임으로 결승권 티켓을 거머쥐었다.

W웨딩컨벤션은 에슬레틱스와 경기에서 9-8, 1점차 승리를 확정하며 광일 리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1회 W웨딩컨벤션이 먼저 3점을 내줬지만 4회 3-3 동점을 이뤘다. 5회에도 2실점을 한 뒤 5득점으로 만회했다. 하지만 6회초 다시 8-8 동점을 허용한 W웨딩컨벤션이 7회말 결승권을 만들며 승자가 됐다.

6번째 무등기의 주인은 오는 30일 무등경기장에서 결정된다. 광일리그 결승전이 오전 10시 먼저 열리고, 오후 1시에는 무등리그 마지막 경기가 치러진다.

◆6라운드

◇1경기(무등리그 준결승) 페가수스 0 1 2 0 0 0 0 - 3 자연환경 0 2 3 0 0 0 X - 5

▲승리투수 : 고희우 ▲홈런 : 최용희(3회 1점)·정상현(3회 2점·이상 자연환경)

◇2경기(무등리그 준결승·5회 시간제한) 광주재규어스야구단 : 0 6 1 1 2 - 10 타요바리스타즈 : 0 1 2 8 X - 11

▲승리투수 : 최병은 ▲홈런 : 서준호(2회 4점·재규어스), 오지훈(2회 1점·타요바리스타즈)

◇3경기(광일리그 준결승·4회 콜드승) 카멋진남V-KOOL : 12 0 12 - 15 태극특장썩스리 : 0 0 0 1 - 1

▲승리투수 : 정중남 ▲홈런 : 김희동(4회 3점·카멋진남V-KOOL)

◇4경기(광일리그 준결승·6회 시간제한) 에슬레틱스 : 3 0 0 0 2 3 - 8 W웨딩컨벤션 : 0 1 1 1 5 1 - 9

▲승리투수 : 정승환

한편 광주일보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함께한다. /김여울기자 wool@



22일 무등중 야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페가수스와 자연환경유한회사 야구단의 준결승 경기. 5회말 볼넷으로 진루한 자연환경 김만철이 정상현의 3루땅볼 때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염소’ 對 ‘추장’... 월드시리즈 저주 풀기

컵스 71년만에 WS 진출

27일부터 클리블랜드와 격돌

194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월드시리즈 4차전.

컵스의 열렬한 팬인 빌리 시아니스는 가족처럼 아끼던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의 표까지 구매해 리글리 필드에 입정했다. 주위의 팬은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고, 시아니스와 그의 염소는 함께 야구장에서 쫓겨났다. 이때 시아니스는 “말할 컵스는 다시는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며 구장을 떠났으니, 바로 ‘염소의 저주’다.

이제 컵스는 71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컵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6차전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상대로 5-0 완승했다. 이로써 컵스는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올랐다.

컵스는 1회부터 기세를 올렸다.

경기의 첫 타자 텍스터 파울러가 우익선상 2루타로 출루했고,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우익수 앞 안타로 주자를 홈에 불렀다. 무사 1루에서는 앤서니 리조의 평범한 외야 뜬공을 다저스 좌익수 앤드루 톨레스가 놓치며 2&3루가 됐다. 컵스는 벤 조브리스트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냈다.

3-0으로 앞선 4회에는 윌슨 콘트라레스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23일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6차전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5-0으로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솔로포가 터졌고, 5회에는 앤서니 리조가 2사 후 1점 홈런을 날려 5-0으로 승기를 굳혔다. 컵스 선발 카일 헨드릭스는 7.1이닝 2피안타 6타점 무실점으로 호투해 2차전 패전의 아픔을 씻었다.

이날 다저스는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웠지만, 커쇼는 5이닝 7피안타 2피홈

런 5실점 4자책점으로 무너지며 또 한 번 포스트시즌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다저스 타선은 단 2안타에 그치며 리글리 필드의 뜨거운 함성에 위축됐다.

컵스는 27일부터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월드시리즈에서 1908년 이후 108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 2017시즌 스타트

KIA 시즌후 첫 합동훈련

1·2군 선수 60명 합평 소집

‘호랑이 군단’의 2017시즌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2일 2군 전용구장인 합평 챔피언십필드에서 시즌 종료 후 첫 합평 훈련을 했다.

먼저 훈련을 시작했던 2군 선수단에 이어 포스트 시즌을 치른 1군 선수단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서 교육리그를 소화했던 선수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서, 넓은 합평 챔피언십 필드가 첫 훈련 장소가 됐다.

시즌 종료 후 첫 자리인 만큼 김기태 감독은 1군은 물론 모든 2군 선수단도 모두 소집했다. ‘고참조’ 이범호, 김주찬, 김광수, 윤석민, 김주형은 일본에서 회복훈련을 하느라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30대 선수들에게는 휴식이 주어졌지만 김다원, 이호진, 최용규, 최병연, 홍재호 등이 자율훈련을 위해 합평을 찾으면서 60명이 넘는 선수가 챔피언십필드를 누볐다.

KIA 선수단은 김기태 감독의 주면에 따라 유니폼을 갖춰 입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김기태 감독은 “낮선 선수도 있고, 오랜만에 본 선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자”며 선수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경쟁을 주문했다. 1·2군 선수단이 모처럼 자리를 하면서 내년 시즌 새로운 전력으로 뛰게 될 선수들의 복귀 인사가 있었다. 올 시즌 중반 군복무를 마치고 몸을 만들고 있는 사이드암 손영민, 우와 김종훈과 얼마 전 팀에 합류한 좌완 박경태 그리고 사이드암 임기영 등이 선수단에 정식으로 인사를 했다.

22일 함께 호흡을 맞춘 선수들의 훈련은 23일 마무리캠프 체제로 전환됐다. 오는 3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되는 마무리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챔피언십필드, 잔류 선수는 챔피언십 필드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합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석민 투런포...NC, 한국시리즈행 1승 남았다

스튜어트 7.1이닝 2피안타 호투...플레이오프 LG에 2연승

NC가 홈에서 열린 플레이오프(PO) 1, 2차전을 모두 쓸어들었다.

NC는 지난 22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플레이오프(5판3승제) 2차전에서 LG를 2-0으로 눌렀다.

전날(21일) 1차전에서 9회말 3점을 뽑아 극적인 3-2, 끝내기 역전승을 거둔 NC는 2차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가 장단 첫 한국시리즈(KS) 진출에 단 1승만 남겼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81.3%(16번

중 13번)나 된다.

외국인 선발 재크 스투어트와 FA(자유계약선수) 이적생 박석민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스투어트는 7.1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눈부신 호투를 펼쳤다. LG 선발 데이비드 허프도 7회말 2사까지는 무실점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0-0으로 맞선 7회 2사 1루에서 박석민이 허프의 시속 148km 몸쪽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쳤다.

지난해까지 삼성에서 뛰던 박석민은 NC

이적 후 첫 포스트시즌 홈런을 결승타로 장식했다. 경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차지했다. 스투어트가 몸에 맞는 공 한 개, 허프가 불넷 한 개만 내줄 정도로 선발 투수 두 명이 완벽한 투구를 했고 불펜진도 견고해 이날 양 팀은 플레이오프 역대 최소 불넷 허용 타이 기록(1개)을 달성했다.

하루 전 NC와 LG는 장소를 잠실구장으로 옮겨 24일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른다. NC는 장현식이, LG는 류제국이 선발로 나선다. /연합뉴스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한의원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휘다리교정, 체형교정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하세요.

심의필 160315-증-30749